

24일 문화전당 3극장서 '2016 다형문학축전'

광주의 시인 김현승의 삶과 문학 다룬 전기동화 출간 시낭송회·학술발표회 등 다양한 행사 열려



다형을 소재로 한 동화 '대추씨 시인의 가을 기도'와 '신문학' 영인본 3집·4집

올해처럼 가을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는 가을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했으니 말이다.

가을이 오면 우리를 곁으로 삼아서 다가오는 시인이 있다. 커피의 시인, 고독의 시인, 눈물의 시인, 다형(茶兄) 김현승(1913~1975). 다형만큼 가을에 어울리는 시인도 드물다.

김현승은 1913년 4월 4일 평양에서 6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인 김창국 목사가 광주 양림교회로 부임하면서 1919년 4월 양림동에 정착했다.

다형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회장 장정식)가 주관하는 '2016다형문학축전'이 24일(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극장에서 열린다.

발표회 등 김현승의 문학을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무엇보다 이번 문학축전이 이전과 변별되는 것은 다형의 삶과 문학을 토대로 한 전기동화가 출간됐다는 점이다.

동화를 쓴 윤삼현 작가는 "광주가 배출한 대표 시인을 동화로 다루는 것의 의미가 있다 생각하던 차에 기념사업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동화로 재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윤삼현 작가 팬 사인화와 아울러 또 다른 출판물이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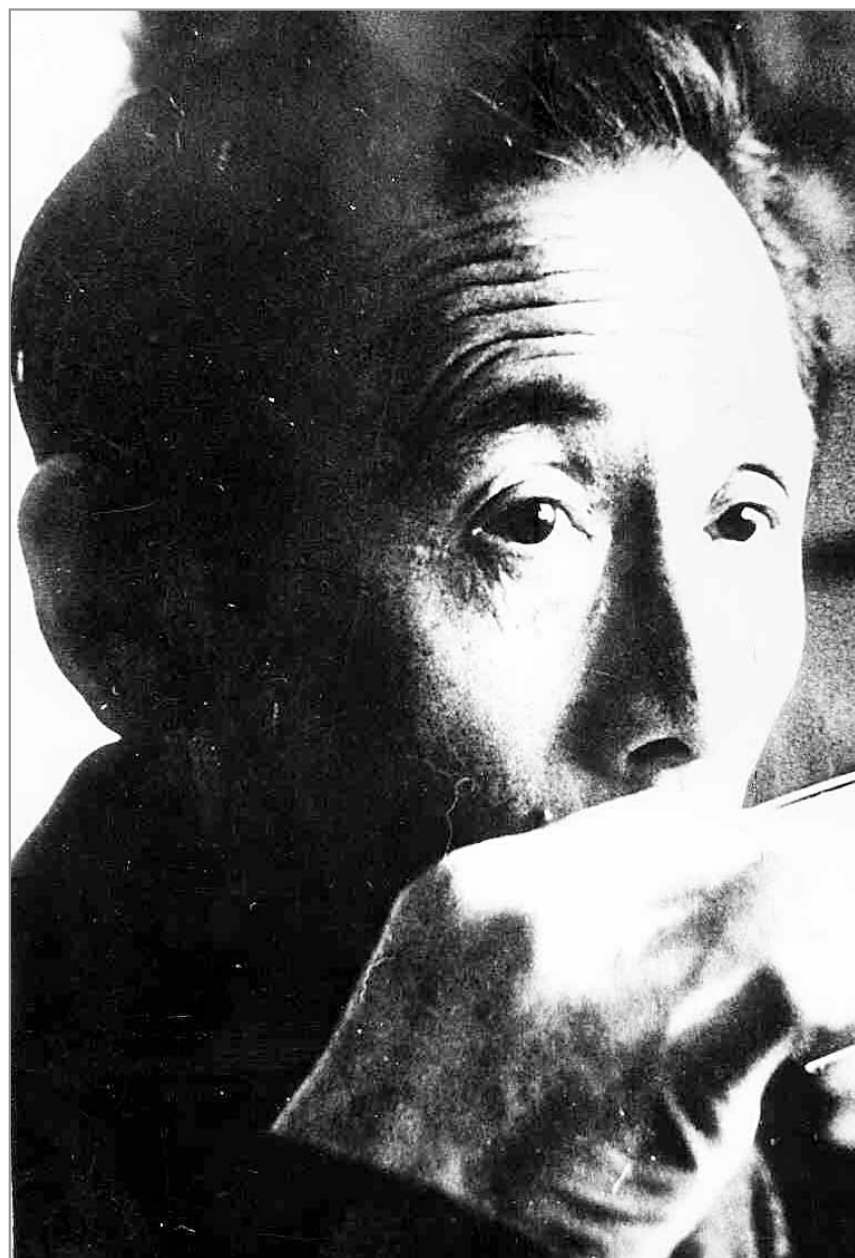
예지 '신문학(新文學)' 제3집과 4집의 영인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신문학'은 다형 김현승이 6·25 전쟁 기간이었던 1951년 광주에서 발행한 전국 유일의 순수 문예지로, 전국 문인들에게 발표 지면을 제공했다.

특히 이번 영인본 4집에는 현대소설의 명작 황순원의 '소나기'가 수록돼 있어 독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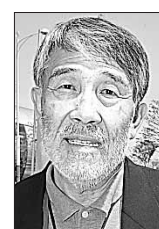
이밖에 다형시낭송회를 주축으로 시낭송도 진행된다. '가을의 기도'(정혜숙), '꿈을 생각하며'(송경덕), '아버지의 마음'(장진규), '절대고독'(김수하), '옹호자의 노래'(김용길·장영숙)가 울려 퍼질 예정이다.

전남대 국문과 임환호 교수는 '시문학의 한국문단사적 위상'을 주제로 학술 발표를 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당시 한국문단의 지평거리였던 '신문학' 발간 배경과 의미 등을 조망한다.



가을에는 커피 한 잔 마시며 茶兄을 추억하게 하소서

한국 분단문학 상징 이호철 소설가 별세



분단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이호철씨가 지난 18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뇌종양으로 투병해 오던 고인은 최근 병세가 악화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운명했다.

1932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0년 인민군으로 한국전쟁에 동원됐다가 이듬해 1·4 후퇴 때 월남했다.

고인은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했다. 유신헌법 개헌 반대 서명을 주도하다 옥고를 치렀으며 1974년에는 문인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투옥되기도 했다.

5·18유공자이기도 한 작가는 만년에 이르기까지 작품 활동을 지속해 지난해에는 등단 60주년을 맞아 장편 '남과 북 진짜 역사 읽기'를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장지는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최고의 국악 경연 '제24회 임방울국악제'

23~26일 광주문예회관·광주향교 등서 열려



창경원 가설무대에 선 국창 임방울

힘들고 암울했던 시절, 국창 임방울(1904~1961) 선생은 민초들과 함께 웃고 울으며 '소리'로 그들의 삶을 보듬었다.

광주시와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채) 등이 진행하는 임방울국악제는 지금까지 수많은 국악 명인들을 배출, 국내 최고의 국악 경연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는 특히 대통령상 수상자 상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명창 부 최우수상, 판소리 일반부, 가야금 부문 등의 상금도 인상, 총 상금은 1억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늘었다.

국악제는 다양한 경연과 함께 국악 명인들이 함께하는 전야제, 아마추어 소리꾼 경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경연은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판소리 명창부를 비롯해 학생부(판소리·기악·무용), 일반부(농악, 기악, 판소리, 무용, 가야금명창, 시조, 퓨전 판소리)로 나뉘어 열린다. 판소리 명창부와 기악, 무용 일반부 참

가자가 경합을 벌이는 분선 경연 대회는 26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SB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광주문예회관 국악당 임방울 동상 앞에서 '국창 임방울 예술혼 모시기' 행사가 마련된다.

23일 오후 5시50분부터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전야제에는 명인, 명창들이 대거 출연한다. 탤런트 김성환이 사회를 맡고 강연영씨 등의 진도북춤으로 문을 여는 이번 전야제에서는 제13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찬미씨가 판소리

'춘향가'중 '동헌경사' 대목을 부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병창 예능보유자 김정숙씨가 '호남가'를, 조상현씨가 '심청가' 중 '한대목'을 선보인다.

임방울 판소리 장기 자랑(23일 오전 9시 광주향교)은 임방울의 소리를 좋아하는 아마추어들의 참여 무대다. 그가 즐겨 불렀던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 '호남가', '추억' 가운데 한곡을 부르면 된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해마다 국악제 수상자들과 함께 해외 공연을 진행, 국악



임방울국악제 전야제에 출연하는 김영임

의 매력을 알리고 있다. 지난 2010년 일본 가와사키 현립 음악당에서 첫 해외 공연을 연 데 이어 매년 일본 요코하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일본 고베, 중국 우한에서 국악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올해 행사는 오는 10월 15일 러시아 사할린 악짜브리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음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